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또 말씀해 주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시어 그를 통해 인생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하려 함이다. 이러한 일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근본>은 ‘구원’이다. 구원하여 육신 일생 동안, 영은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다.
2.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발탈되지 않은 원시 세계나, 혹은 험난한 세상으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느냐.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보냈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3. 자기가 귀히 쓰는 물건도 잘 안 빌려 준다. 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물며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 보낼 수 있겠느냐. 안 보낸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
4. <시대 보낸 자>는 하나님께서 아예 애인으로 택하시어 사랑한 자다. 그는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며 하나님과 일체 되어 살았다. -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5. <자기가 사랑하는 자>와 사는 것이 최고 행복한 일이다. <사랑의 행복>이다.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원하는 자와 살아야, 뇌가 뒤집어져서 그렇게도 기뻐한다. <사랑의 세계>로 볼 때 그러하다. 이것은 선생이 깨달은 ‘사랑의 도’ 이다.
6. 가령 물건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물건을 하나 사 오면, 그렇게도 좋고 기쁘고, 매일 그 물건을 본다. - 이것이 <그 물건을 산 사람이 원하고 바라던 행복한 삶>이다. <음식>도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것,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 맛있다고 하고 만족한다.
7. 선생도 물건을 사 올 때, 한 개만 살지라도 ‘제일 좋은 것’ 을 산다. 그 제일 좋은 것들을 월명동에 갖다 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가져다 놓고, 또 어떤 것은 한 민족에서 제일 좋은 것, 어떤 것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을 뽑아 가져다 놓은 것도 있다. 그중 하나가 <성자바위>다. 그리고 <큰바위얼굴바위>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다. 아주 귀하다.
8. <월명동>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골짜기다. <자리, 위치>를 볼 때 그러하다. 예수님이 나신 곳보다 훨씬 좋다. 왜? 거기에는 ‘자녀’ 를 낳은 곳이고, 이곳은 ‘신부’ 를 낳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 가 나고, 이곳에서 ‘시대 신부들’ 이 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을 받아 전해 준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신비한 장소냐.

9. <기독교>에서는 ‘자녀’ 만 난다. 그러니 형제끼리 사랑했어도 근본 사랑의 만족이 없다. 오직 <새 시대 신부 역사>에서만 ‘신부들’ 이 난다. 이 역사에 와야 <하나님의 신부, 사랑의 대상>이 된다.
10. <하나님의 신부, 사랑의 대상>이 나는 장소는 다른 곳에 없다. 그래서 월명동이 귀하다는 것이다. <지형적으로 볼 때>도 지구상에서 최고 1등 작품이다. <월명동 약수>도 지구상에 최고 좋다는 물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좋다. 그러니 따라갈 수가 없다.
11. <아픈 자들>은 약수를 먹고 병이 즉시 낫는 것도 있고, 혹은 하루, 이틀에 낫는 것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가야 낫는 것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약수도 먹고, 기도도 하고, 의학적으로도 병행하면서 관리해야 된다. <축구를 할 때>도 중앙선에서 한 번에 골대로 볼을 차지 않듯이, <병을 다루는 것>도 초근초근하게 다뤄야 된다.
12. 나이가 먹고 해 그늘에 서성되기 전에 부지런히 열심히 뛰고 달리며 살아라.
13. 휴거된 자는 <육신>이 죽으면, ‘영’ 으로서 ‘영원한 세계, 천국’ 을 오고 가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14. <휴거된 영>은 육계를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잘 안 통한다. 자기 육신을 신령하게 만들어서 통하기도

하지만, <영>이기 때문에 육신과는 잘 안 통한다. <영들>은 지구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니 자기 육이 오라고 해도 “지금 한창 재밌게 놀고 있다. 지금 배구 하고, 축구 한다. 수영한다. 등산한다.” 하면서 잘 안 온다. 실상 지상세계는 영계의 그림자와 같은 세계로 근본은 영계에 있는 것들을 지상에서도 하는 것이다. 이같이 <영들>도 육신이 세상에서 바쁘게 인생을 살듯이 영의 세계에서 바쁘게, 재밌게, 즐거워하며 살고 있다.하나님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영의 세계에도 다 주셨으니, 세상에서 살 때 열심히 영을 위해 행하라는 것이다.

15. <영>을 위해 해 놓으면, 마치 농사를 지어 놓고 먹고 마시듯이 누리게 된다. <천국>은 ‘누리는 세계’ 다. 그리고 역시 ‘사랑’을 빼놓을 수 없다. 희망이 넘치고, 뇌가 흥분돼서 날마다 사랑에 미쳐서 사는 삶이 연속된다.
16. 어떤 사람은 묻기를 “천국에 가서 뭐 하고 살아요? 매일 놀기만 해요?” 한다. <천국>에는 할 일도, 재밌게 즐기며 사는 것도 그 가짓수가 ‘수억만 가지’ 나 된다. <영>도 어떤 일을 한번만 한다고 만족하지 않는다. 밥도 한 번만 먹고 만족하지 않듯이, <영>도 여러 번 하면서 그때마다 만족한다.
17. <영의 세계>는 각종, 각색으로 다 갖춰져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고로 <영의 세계>에 대해 말씀해 주니, <영의 세계>를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

18. <육의 세계의 할 일>이 끝이 없듯이, <영의 세계>에서도 할 일이 끝이 없다.
19. 지금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볼 수 있는 시대이니, 그리도 신난다. 마치 <짝사랑을 하는 상대>가 자기 얼굴만 쳐다봐도 뒤집어지고 하루 종일 좋듯이, 지금도 그와 같은 때다.
20. <짝사랑만 했을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했는데, 이제 둘이 짝이 되어 사랑에 불이 붙어서 사니, 행복한 것이다.
21. <선생이 짝사랑을 할 때>도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했다. 그때 짝사랑을 하던 자에게 말하기를 “너, 두고 봐라. 내가 왕이야. 온 세상의 왕으로 왔는데, 지금 성장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내 고향에 궁궐을 차려서 산다. 네가 당세 때 보리라.” 했다. 그래도 자기는 싫다고 했다. 결국 하나님께 속이야기를 했을 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같이 이 지구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생의 짝사랑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네 마음과 같다.” 하셨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이 짝사랑하는 자들’에게 쫓아가서 전도했다. 수십 군데, 수천 군데를 돌아다니며 1년에 만 명씩 전도했다. 한번은 명동의 코스모스백화점에 가서 전도할 때다. 그때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이 있기에,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순간 한마디만 해 준다고 하며 이야기를 들어 보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말해 주기를, 당신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하며,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왜 몰라주느냐고 했다. 결국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해 주며,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도 사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분, 30분씩 말씀을 전해 줬다. 그러다 영안이 떠서 보이길,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기에 꼭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했다. 그래야 잘되고 형통한다고 했다. 그러니 장사하다 말고 막 울면서, 셔터를 내릴 테니 더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그날 그곳에 있는 자들이 서로 자기 상점으로 와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서 나를 불렀다. 이사야 9장 말씀같이 그는 전능자요, 기묘자이며, 모사(謀士)다. 또 이사야 11장 말씀같이 지혜자이며, 지식자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시니 다 알고 능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짝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돌아다녔다. 지금은 모두 하나님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살고 있는 시대이니, 하나의 옛날이야기로만 해 준다.

22. <월명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나는 곳으로 시작되어 ‘시대를 따르는 자들’이 나는 세계가 되었다. 그러니 <귀한 장소>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의 세계>다.

23. <월명동에 있는 작품들>도 하나님이 귀한 것을 사다 놓으신 것이다. 다 <뜻>이 있다. 살 때 하나님께 “이거 살까요? 뜻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면 사자.” 해서 사 온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준비한 것이다.” 해서 사 온 것도 있다. 엄청난 값을 안 줘어도 사 온 것이 많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를 판 자들은 <보관한 자들>이다. 지구상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보관한 수고비를 주듯 적게 주고 가지고 온 것이 많다.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 하게 역사하셨다.

24. <시대의 귀한 자들>이 누구냐. ‘시대 신부들’이다. <물건>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가지고 왔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25. 하나님이 택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온 것이다. 이것이 그리도 크다.

26.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를 택해서 같이 살 때 기쁘듯, <하나님>도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를 택해서 살 때 그리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 만물 비유, 사랑 비유, 짝사랑 비유까지 했다. 지금은 <짝사랑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에 불붙어서 사는 실존 세계’에서 살게 됐다. 그러니 늘 재밌고 즐거운 것이다.

27. 옛날을 생각할 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복직해서 살고 있으니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냐.

28.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성령님을 늘 생각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뱃속에 새기고 열심히 해라.

29.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주님 사랑>에 불타서 살아라. 그러면 인생에 지루함이 없다.

30. <신앙을 하다가 뒤흔쳐져서 나간 자들>이 많다. 왜? 사랑에 불타

지 않으면 꺼져 버리기 때문이다. <섬리 세계>에서는 ‘사랑’
이 없으면 죽은 자, 식물인간과 같다. <사랑이 꺼진 자>는 하나
님 앞에 사랑의 대상이 못 된다.

31. <섬리 세계>는 ‘사랑의 세계’ 다.

◎ 그러면 이제 말씀 끝내겠습니다.